

‘에고역사’와 미시사의 새로운 논리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 《미시사와 거시사》

김기봉 | 경기대 사학과 교수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는 ‘에고역사’라는 새로운 장르의 역사서술을 실험하고 있다. 이 책의 지은이들이 역사가가 된 동기는 서로 다르지만, 놀랍게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사가가 됐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한다. 역사학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미시사와 거시사》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독일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역사학에서 미시사의 가능성과 한계가 논의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화가는 종종 자신의 모습을 자화상으로 그린다. 하지만 역사가는 자신의 삶을 역사로 쓰는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는 이런 터부를 깨기 위해 씌어진 책이다. 이 책이 실험적으로 시도하는 것은 ‘에고역사’(ego-history)라는 새로운 장르의 창출이다.

그런데 이런 장르가 과연 역사학의 학문적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정상과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 책을 기획한 피에르 노라(P. Nora)는 최근의 커다란 두 흐름이 교차함으로써 그 계기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고전적 기준이 무너지고, 역사가들의 시선이 현재라는 시점에 집중하는 조건 속에서 ‘에고역사’라는 새로운 장르의 역사서술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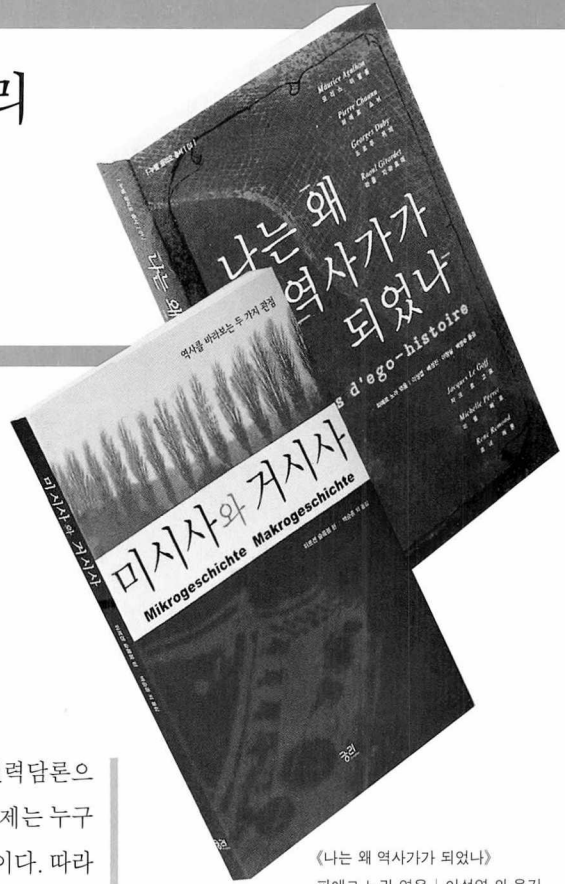
역사는 죽음에 대항하는 싸움

포스트모던 역사이론가들에 의해 불편부당한 역사란 없으며 오직 ‘누구를 위한 역사’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해진 이후, 이 시대의 역사가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한 신념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더 이상 없어졌다. 오히려 이 시대에는 대중을 향해 무엇을 위해 역사가가 됐는지 공공연하게 말하는 역사가가, 그의 역사관을 숨긴 채 객관적 역사를 쓴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보다 더 역사의 진

실을 대변한다. 역사이성 자체가 권력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해야만 하는 명확한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역사학은 역사가의 사적 역사이성을 초월하는 ‘객관성’이 아니라 그것을 공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더 진력해야 한다.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에 자신의 역사를 서술한 모리스 아퀼롱, 피에르 쇼뇌, 조르주 뒤비, 라울 지라르데, 자크 르 고프, 미셸 페로 그리고 르네 레몽과 같은 일곱명의 역사가는 명실공히 프랑스 역사학을 대표하는 학자들이다. 무엇이 이들을 역사가로 만들었는가? 각자의 개인적 경험과 환경에 따라 그들의 에고역사는 다르다. 그럼에도 그들이 역사의 신 클리오의 사제가 되는 길을 선택했던 동기로 가장 많이 언급했던 것은 놀랍게도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역사가가 됐다는 것이다. 르 고프는 역사를 죽음에 대항하는 싸움이라고 정의했고, 쇼뇌는 죽음과 함께 망각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역사가가 됐다고 고백했다. 역사학이란 결국 기억을 통해 죽은 과거를 부활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동으로 성립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미술허가 꿈꿨던 것과 같은 과거의 완전한 부활은 불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어떤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
피에르 노라 역음 | 이상엽 외 옮김
예코리브르/A5신/472면/19,500원

《미시사와 거시사》
찰스 킬리 외 지음 | 백승중 외 옮김
공리/A5신/218면/9000원

과거를 선택해서 역사로 남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각각의 역사가는 에고역사를 통해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말했다. 그들 각각은 전공 분야의 차이로 나타나듯 다양한 역사를 선택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하나의 일치할 수 있는 선택기준이 있다. 그들 모두는 뒤비의 말로 대변되듯 “죽은 과거, 단지 사건의 맥락들을 차갑게 구성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삶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에 관심을 쏟았다.

‘역사학의 위기’를 염려해야 하는 이 시대에 진정 요청되는 것은 위와 같은 20세기 거장 역사가들의 문제의식이다. 이미 역사가가 된 기성 역사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를 반성하기 위해, 그리고 이제 막 역사가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역사학도는 “나는 왜 역사가가 되고자 하는가?”를 숙고하기 위해 그들의 에고역사를 숙연한 자세로 읽을 필요가 있다.

독일·미국·프랑스의 미시사 실험 답아

“나는 왜 역사가가 되었나”를 이야기하는 에고역사는 거시사가 아니라 미시사다. 오늘날 미시사가 전문 역사가들이 공인하는 ‘정상역사학’의 범주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중이다. 《미시사와 거시사》는 이런 논란의 현 위치와 앞으로의 진행방향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책이다. 미시사는 서구역사학에서는 ‘실험단계’에 있고, 우리 역사학에서는 ‘탐색단계’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학계에서 미시사에 대한 거부반응은 일상생활사와 같은 다른 역사학의 신경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임상실험도 끝나지 않은 약품을 우리 학계에 들여온다는 선입견으로 미시사를 공격하는 적지 않은 한국사학자들이 있다. 이에 대항해 이 책의 책임번역자 백승종 교수는 한국사 연구에 미시사적 문제의식과 방법론을 적용하는 실험과 탐색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기존 역사학계의 미시사에 대한 거부반응이 아무리 거세도 미시적 접근방식은 물리학을 필두로 생물학, 경제학, 사회학에서는 이미 일반적 흐름으로 자리 잡은 상태다. 더 나아가 최근 등장한 ‘나노 테크놀로지’는 극미세계에 대한 통제와 조작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꿀 꿈의 과학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과학 패러다임의 ‘미시적 전환’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미학적인 차원을 넘어서 “작은 것이 중요하다”는 실용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역사학이 미시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이런 학문의 일반적 경향을 무시하고 기존 역사학 현실에 안주함으로써 ‘역사학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시사에 대한 일반적 소개는 이미 광차섭 교수가 편집한 《미시사란 무엇인가》(푸른역사)에 의해 훌륭한 형태로 이뤄졌다. 광교수의 책이 이탈리아 미시사에 한정된 것이라면, 백교수가 책임번역한 《미시사와 거시사》는 이탈리아를 넘어서 독일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역사학에서 미시사의 가능성과 한계가 논

“미시사는 우리 역사가 내재하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세계사적 보편속으로 용해하거나 환원시키지 않고, 개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결합태’를 형성했는지 그려내는데 진력한다.”

의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원조’ 미시사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미국의 역사가들에 의해 새로운 문제의식과 새로운 차원에서 실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시사로 거시적 역사상 해명 가능해

지금까지 우리에게 미시사는 일반적으로 긴즈부르그의 《치즈와 구더기》에 나오는 메노키오처럼 이른바 ‘정상적 예외’로 불릴 만한 어떤 개인의 삶을 현미경적으로 관찰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사회사와는 다른 방식의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추구하는 역사서술로 이해됐다. 이런 미시사는 거시사와는 화해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반해 이 책이 새롭게 시도하는 것은 둘 사이의 대립을 넘어 상호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책의 지은이들이 중점적으로 시도했던 것은 미시적인 접근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엿혀있는 역사의 커다란 문제를 해명할 수 있는 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 근대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는 자본주의와 근대국가의 형성과 같은 세계사적 보편성을 담보하는 거시적 관점에 입각해서 한국근대사를 기술해왔다. 이에 대해 미시적인 관점을 통해 역사의 커다란 문제들을 해명하고자 하는 미시사는, 우리 역사가 내재하는 특수성과 복잡성을 세계사적 보편속으로 용해하거나 환원시키지 않고, 개체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떤 ‘결합태’(configuration)를 형성했는지 그려내는데 진력한다. 미시사의 기본정신은 “신은 세세한 것 속에 깃들여 있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은 커다란 세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우리 안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을 통해 ‘미시사적인 일반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백승종 교수는 위와 같은 미시사의 기획을 한국사에 실현시키고자 하는 포부를 갖고 있다. 앞으로 그의 학문적 성과를 기대하며, 이 책이 한국사에서 미시사에 대한 논쟁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 ■

김기봉 교수는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오늘의 역사학》(공저) 등을 펴냈고 《20세기 사학사》를 공역했다. 현재 경기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음은 프랑스 현대 정치사학들을 대표하는 인물인 르네 레몽의 《동시대의 역사》 말미에 실린 글로, 그에게 역사는 무엇이었는지 감동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역사는 체계적인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했고, 어떤 분야의 최고라는 자만심으로부터 막아주었으며, 교조주의와 이데올로기적 파벌성으로부터 예방시켜 주었다. 또한 역사는 ‘시간의 사술’을 연결할 수 있고, 이것을 틀 속에 가둘 수 있다는 착각과 백지화의 유혹 및 집단적 존재의 전면적 변화에 대한 매혹으로부터 나를 면역시켜 주었다. 역사는 내게 상황의 다양성, 인간과 상황의 복잡성, 사건의 우연성과 이성적 논리가 아닌 역사의 논리를 가르쳐주었다.”

《미시사와 거시사》의 옮긴이 가운데 한명인 백승종 교수는 《미시사-거시사 성격의 논쟁》이란 글에서 미시사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백교수에 따르면, 미시사는 거시적 사회사(이를테면 아날학파와 빌레펠트 학파 등)로부터 지배층을 본위로 삼지 않는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지배층에 관한 이전의 연구(정치적 대사건과 인물중심의 전통적인 역사학)에서 개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본받았 것이었다. 술룸봄은 “새로운 연구로서 미시사가 강조하는 것은,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세밀하게 관찰하되, 그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이다”고 말한다.